

가로 폭포

높이 12m 의 이 폭포는 가로 폭포라고 불리며, 가파르고 좁은 가로 협곡에서 흐른다고 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에메랄드색 용소는 중심부 깊이가 3~4m 이다.

가로 폭포 주변의 삼림 지대에는 주로 고로쇠나무, 삼나무, 칠엽수가 자라고 있다. 폭포 근처의 밤나무, 단풍나무, 여러 종류의 은행나무는 가을이면 잎이 선명한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 주변의 산책로를 뒤덮는다. 몇 그루의 나무에 얹혀 있는 덩굴은 등나무이다.

가로 폭포는 수 세기 동안 방문객들을 매료시켜왔다. 1802 년 이 폭포는 아키타에 관한 글로 유명한 여행가이자 박물학자인 스가에 마스미(1754~1829 년)의 시 주제가 되었다. 31 음절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와카 형식을 따른 그의 시는 근처에 있는 돌에 새겨져 있다.

furu yuki ka

내리는 눈일까?

hana ka aranu ka

아니면 열린 꽃일까, 아닐까?

yamakaze ni

산바람에

sasowaretechiru

이끌리고, 옮겨지고, 흩어지는

taki no shira awa

폭포의 하얀 거품이네

폭포 옆에 있는 목조 건물은 다키노사와 신사이다. 1780 년에 지어졌으며, 부동명왕이 모셔져 있다. 부동명왕은 폭포 근처나 외딴 산에 자주 모셔지는 무서운 형상을 한 부처이다.

시라이토 이단 폭포라고 불리는 두 단으로 된 두 번째 폭포는 가로 폭포에서 계곡을 더 올라가면 있다. 가로 폭포 주차장에서 다카야마산으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를 따라가면 폭포로 갈 수 있다. 소요 시간은 도보로 30 분이다.